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인가?

강화구 목사(제일영도교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문명의 시작,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나온다. 그래서 제목도 창세기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첫 단어에서 따온 것인데 그 뜻은 ‘태초에(In the Beginning)’다. 헬라어 번역(γένεσις) 역시 ‘기원’을 뜻한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른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태고적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성경 전체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토대가 된다.

1. 저자와 연대

전통적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의 저

자라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지난 2백여 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비평적 접근 방식을 통해 여러 자료의 존재를 가정했고, 그 결과 창세기는 여호와 문서(J), 엘로힘 문서(E), 그리고 제사장 문서(P)가 잘 짜여진 편집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은 결국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니라, 포로 후기 어떤 사람 혹은 공동체가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던 자료들을 최종 집대성함으로써 현재의 창세기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서 가설을 주장하던 대부분의 근거가 자료의 차이가 아니라, 저자의 신학적, 문학적 의도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차이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창세기에 저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곳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과 모세의 설교 등으로 오경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와

유대교 역사를 통틀어서 모세의 저작권을 인정한다. 물론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오경을 언급하는 방식 자체가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전제하는 듯 한다(수 1:7-8; 왕상 2:3; 왕하 14:6; 23:21, 25; 대하 8:13; 34:14; 35:12; 스 3:2; 6:18; 느 8:1; 13:1). 신약 성경도 이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마 8:4; 19:8; 눅 2:22; 16:29, 31; 요 5:46; 7:19-23; 행 3:22; 롬 10:5, 19; 고전 9:9; 히 7:14).

실제로 오경의 여러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 아말렉을 치신 이후에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모세는 또한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여정을 기록하였다고 언급하기도 한다(민 33:2).

그러나 창세기를 포함한 오경 안에서 모세의 저작이라고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몇몇 부분들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다(신 34장).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의 기록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창세기의 경우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을 주전 2,000년대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갈대아족(칼두)이 바빌로니아에 등장한 것은 주전 1000년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창세기 14:14에 등장하는 지명 “단”은 명백히 사사기 17장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모세 이후에 기록되었을 법한 단순한 기록들이 오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저작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오경은 모세가 썼다. 현재 존재하는 오경의 모든 부분을 모세가 썼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록에 대해 모세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오경은 시대를 지나면서 수정 보완되어 왔다는 사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가장 간단하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명이나 표현 등을 수정하는 정도의 편집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3) 창세기의 경우 가장 늦은 시대인 요셉 시대만 해도 모세 시대와 400년 가량 간격이 존재하기에, 모세는 분명 이전의 자료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2. 창세기의 고대성

언급한 바와 같이, 창세기의 고대성에도 약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창세기의 저자와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창세기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첫 독자는 출애굽 세대였는데, 그 내용은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창세기의 고대성을 입증할 만한 다양한 자료들이 창세기 안에 존재한다.

첫째, 창세기 안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이름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주전 16세기 바벨론의 Abamram이라는 이름과 유사한 패턴이고, 야곱은 주전 18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야콥 엘, 나홀은 마리 문서에 등장하는 Nakhur 등과 견줄 수 있다. 물론 유사한 패턴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고대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름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다.

둘째,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몇몇 이야기들은 실제로 주전 15세기경 여타의 문서들과 비슷한 관습을 공유하고 있다. 가령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종에게 상속하는 것은 누지 문서에 등장하는 예와 비슷하다. 몸종을 남편의 후처로 주는 풍습도 누지 문서에 비슷하게 나온다. 본처에게 아들이 없을 때 여종을 후처로 주어 아들

을 낳게 하는 규정이다. 하갈, 라헬, 레아의 여종의 이야기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알기 위해 누지 문서의 규정을 참고할 만하다. 누지 문서에는 드라빔을 소유하는 것이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라는 규정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아버지의 상속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족장 시대의 고대성은 성경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종의 몸값 비교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37장 28절에서 요셉은 은 20세겔에 이집트로 팔려 갔다. 아래 표에서 비교해 본다면 요셉의 시기를 자연스럽게 주전 20세기경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시기에는 은 30이 값인데,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의 고대성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혹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자료들을 그대로 반영하여 은 20이라고 기록하였을 것이다.

시대	몸값	연대
아카드 제국	10-15세겔	주전 24-22세기
우르 제3 왕조	10세겔	주전 22-21세기
주전 20세기	20세겔	
주전 15세기	30세겔	출 21:32; 누지 문서
주전 1,000년	50-60세겔	
페르시아 시대	90-120세겔	

넷째, 족장 시대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몇몇 이야기는 모세 시대만 해도 율법 규정에 의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족장들은 자연스럽게 이복 누이들과 결혼하는데(창 20:12; 29:21-30), 이는 율

법(레 18:9, 11, 18; 20:7 등)과 정면 위배된다. 후대에 기록되었다면 이런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족장들은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역시 신명기 21:15-17의 규정에 위배된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돌을 세우고 돌에 기름을 붓고 나무를 심는 행위들을 하는데(창 28:18, 22; 35:14; 21:33), 이런 행위는 신명기 12:2-3에 위배된다. 특히 벤엘의 경우는 여로보암 2세 이후 악명 높은 제단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벤엘에서 예배한다는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다.

다섯째, 창세기 14장은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원정을 나왔다고 언급한다. 고대 제국을 형성하던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장거리 원정을 다녔으며, 여러 왕들이 함께 동맹하여서 원정을 다녔다고 하는데, 이는 주전 2,000년대 이후 메소포타미아 역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후 메소포타미아는 네 왕국이 동맹 체제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볼 때, 비록 15세기의 모세가 창세기를 저술했지만, 그 내용은 주전 2,000년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3. 문학적 구조와 특징

창세기는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자랑한다. 단어수로만 따지면 창세기는 32,161자로 예레미야서(33,459) 다음으로 가장 많은 단어로 이어졌다. 시간적으로도 창조부터 이스라엘 열두 지파까지의 긴 역사를 담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내러티브 장르가 주를 이루지만,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기

에 창세기가 의도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를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창세기 1-11장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기를 묘사하고, 창세기 12-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포함하는 족장 시대를 묘사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창세기 전체를 꿰뚫는 독특한 구조적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의 족보니라”(엘레 툴레도트, These are the generation (account) of)라는 전형적인 표현이 창세기에 총 11회 등장하며, 이 표현은 창세기의 소단위를 나누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이 표현이 창세기의 주요한 단락 구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창 2:4; 5:1; 6:9; 10:1; 11:10; 11:27; 25:12; 25:19; 36:1, (9); 37:2).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내력’이라고 번역한 것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족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열한 개의 툴레도트 양식 중에 족보 목록을 포함하는 툴레도트 양식은 아담의 툴레도트(창 5:1-6:8),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툴레도트(창 10:1-11:9), 셈의 툴레도트(창 11:10-26), 이스마엘의 툴레도트(창 25:12-18), 그리고 에서의 툴레도트(창 36:1-8과 창36:9-37:1)로 모두 여섯 개다. 아담과 셈, 함, 야벳의 툴레도트가 마지막에 작은 이야기 단락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족보를 포함하는 툴레도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대로 긴 이야기 단락이 뒤 따르는 툴레도트는 하늘과 땅의 툴레도트(창 2:4-4:26), 노아의 툴레도트(창 6:9-9:29), 데라의 툴레도트(창

11:27-25:11), 이삭의 툴레도트(창 25:19-35:29), 그리고 야곱의 툴레도트(창 37:2-50:26)로 모두 다섯 개다. 각각의 툴레도트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1:1-2:3	7일간의 천지 창조	서론
2:4-4:26	천지의 툴레도트	이야기
5:1-6:8	아담의 툴레도트	족보 + 짧은 이야기
6:9-9:29	노아의 툴레도트	이야기
10:1-11:9	셈, 함, 야벳의 툴레도트	족보 + 짧은 이야기
11:10-26	셈의 툴레도트	족보
11:27-25:11	데라의 툴레도트	이야기
25:12-18	이스마엘의 툴레도트	족보
25:19-35:29	이삭의 툴레도트	이야기
36:1-8, 9-37:1	에서의 툴레도트	족보
37:2-50:26	야곱의 툴레도트	이야기

위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창세기는 다섯 개의 긴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전환을 도와주는 짧은 족보 형식이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창세기의 주된 이야기 흐름은 아담-노아-아브라함-이삭-야곱이 되겠다. 독자는 이러한 창세기의 구조적 특징을 잘 고려해서 하나의 거대한 문학적 단위를 따라 읽고, 더 나아가서 전체 창세기의 주요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면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4. 주제와 기록 목적

1) 후손

창세기의 거대한 흐름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탄생을 알리는 것에 있다. 온 인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초점을 맞춰가는 과정은 특별히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앗(후손)인가?”라는 질문에 온전히 녹아 있다. 위에서 살펴본 창세기의 틀레도트 구조 자체도 아담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후손의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Narrowing of Focus)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부분적 성취를 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1-3에서 구체화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땅과 후손, 그리고 열방의 복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셨다. 이 세 약속은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창세기는 약속의 후손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후손’ 혹은 ‘씨’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만 무려 59회 등장하며, 성경 전체 중 약 40% 정도가 창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에서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에 지속적으로 응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 야벳과 함이 아니라 셋,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창세기는 반복해서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차자 우선의 원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의 긴장은 특별히 족장사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이다.

2) 땅

약속의 후손이 많아지는 장소적 배경은 가나안 땅이다. 땅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원래 인간은 땅으로부터 유래했다. 아담도 노아도 모두 땅의 사람이었고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동시에 땅으로부터도 쫓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의 주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 땅을 상실하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땅을 회복하고 차지하는 역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족장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다가 야곱의 장례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가 극대화 될 것이다.

3) 축복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요한 목적이다. 복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지만, 타락함으로 인류는 복을 상실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셨는데, ‘떠나라’와 ‘복이 되라’이다. 떠남의 목표가 바로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점은 족장들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요셉의 삶을 통해 열방의 복이 되는 사명이 구체화된다. 창세기의 이런 전망은 궁극적으로 참된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복이 열방에 전파 될 것이다.

5.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의 관점으로 창세기 읽기

창세기가 담고 있는 역사적 무대와 창세기의 독자들이 경험하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 애굽에서의 열 재앙, 출애굽과 홍해 사건,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애굽 온 땅에 흑암을 내리실 때 자신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는 창세기의 모습을 볼 때 무릎을 치며 감격했을 것이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이 각종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람의 경험이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느꼈을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야곱의 장례 행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놀랐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단순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전 조상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길을 지나고 있음에 감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과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감사했을 것이다. 이처럼 창세기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시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여전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21세기의 신실한 성도들도 창세기를 통해 신실하게 백성들을 살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6. 주요 단락 해설(1-7장)

1) 천지창조 (1:1-2:3)

칠 일간의 천지창조를 다룬다. 창조 내러티브지만, 시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단어나 표현의 반복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세상에 대한 저자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첫 사흘 동안은 조형의 단계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준비하며, 두 번째 사흘 동안은 충만의 단계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충만하여 다스릴 생명을 창조하신다. 세상의 창조는 특별히 여섯째 날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제 인간은 작은 왕으로서 큰 왕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이르러 창조는 절정에 도달한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시며,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신다.

2) 천지의 톨레도트(2:4-4:26)

창세기의 구조에 있어서 첫 번째 내러티브 톨레도트 단락이다. 이 단락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계획을 밝힌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 에덴동산을 준비하신

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으며, 에덴을 기초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 받았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말았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왜곡되었다. 에덴에서 쫓겨난 뒤 최초의 형제 살인으로 시작해 죄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가고, 죄의 영향력도 에덴동산에서 들판으로 확대된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살게 되었고, 이 땅에서 문명을 일으키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땅에서의 거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전히 소망은 남아 있다. 새롭게 주어진 셋과 그 자손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죄악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

3) 아담의 톨레도트(5:1-6:8)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 두 번째 톨레도트 단락은 아담의 족보와 뒤이어 나오는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아주 오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얼마를 살든지 상관없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무려 여덟 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 누구도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행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단 한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어둠에 섬광 같은 빛이 비추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락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 들판으로 확대되었던 타락은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4) 노아의 톨레도트 (1)(6:9-9:29)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며, 당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셨다. 구체적으로 명령을 전달하시는데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노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뿐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를 내지 않는다. 때가 되어 하늘의 창들과 깊음의 샘들이 터져 홍수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여 세상의 모든 산이 잠겼고, 지면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었다.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 받은 노아와 그가 족들을 위해 새 창조를 이루어가실 것이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